

I. 서론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지역 실천 사례 연구*

박 경 란**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

박 미 정***

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요약》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지역 실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특수교육의 센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각각 하나씩 선정하여 실천하고 있는 지원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네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원 대상으로 한국은 모든 장애 영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나, 일본은 장애 영역별로 구분되며, 학교 컨설팅을 통해 일반학교 교원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한다. 둘째, 지원 내용으로 한국은 '진단·평가'와 '순회교육'의 기능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학교교육 담당 인력에 대한 전문가적 지원을 더 강조하고, 이와 함께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취학지원이나 상담에 비중을 둔다. 셋째, 인력 구성의 전문성으로 한국은 특수교사와 치료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본은 특수교사, 전문 상담사, 대학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 관리 측면에서 한국은 센터 운영 자료 등의 관리가 다소 미흡하나, 일본은 센터 개설 이후부터 관련 자료가 꾸준히 보관되어 있다.

주제어 : 특수교육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별지원교육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특수교육은 '개별화'와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다.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정의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라 명시하고 있다.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고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은 곧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그들이 갖는 생활 및 학습상의 어려움을 개선·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수교육의 최근의 정의나 이념을 반영하여 일본은 '특수교육'이라는 용어 대신에 '특별지원교육'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특수교육 지원'이라는 용어가 특수교육 관련 문헌에서 빈번히 언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 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98~'02)에서 특수교육 강화를 위해 '장애아 교육기회 확대, 특수교육 내실화,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효율'을 강조한 이래, 2차('03~'07)에서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를 목표로 통합교육 실천을 위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3차('08~'12)에서는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기여'라는 비전 아래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특수교육 지원 강화'의 3대 분야로 나누고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를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삼았으며, 현재 추진 중인 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에서도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를 4대 추진 분야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를 위해 '2015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등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01년에 처음으로 설립되어,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역중심의 장애아동 서비스 전달 및 지원체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196개가 설치·운영 중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5). 현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196개의 지원센터에 563명의 장애영아가 배치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총 716명의 교사와 544명의 지원 인력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순회교육, 치료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각각의 지원 활동에 대한 지역 교육지원청별 활동 보고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활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어려우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서비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순회교육(이상훈, 2013)의 경우 지원 교사수가

* 이 논문은 2015년도 세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여진 것임.

** 제1저자(kyoungghan@hanmail.net)

*** 교신저자(mjp321@naver.com)

2010년 658명, 2011년 676명, 2012년 719명, 2013년 723명, 2014년 79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교육부, 2011; 2012; 2013; 2014)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교사의 고용상태, 전문성 등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민천식, 2010; 박경옥, 2011; 김태훈, 201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성격이나 역할 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민천식, 2010).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2015년 특수교육 운영 계획'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특수교육 활동 지원(순회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가족 상담, 특수교육 관련 연수 제공 등), 특수교육대상자 발견 정보 관리 지원, 진단·평가 지원, 선정·배치 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a, 2014).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국가에서 제시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지역의 실정이나 지원 학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두에서 최근 특수교육의 핵심 키워드를 '개별화'와 '지원'이라 언급하였다. 여기에 최근의 흐름을 반영한 키워드를 하나를 더 추가하면 '지역화'를 들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적 특수성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에 있어서 지역화 강조는 일본과 그 맥을 함께 한다(細瀨, 박경란, 2006). 한 가지 일본과의 차이를 들자면 일본은 '특별지원학교(특수학교)'가 지역 특수교육의 센터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일본 특별지원학교의 기능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지역 실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특수교육 지원의 지역 실천 사례를 제시·분석한다.

둘째, 한국 특수교육 지원의 지역 실천 사례를 제시·분석한다.

셋째, 한국과 일본 특수교육 지원의 지역 실천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특수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지역 실천 사례를 분석하고자 지역 특수교육의 센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각각 하나씩 선정하였다. 우선 일본의 사례 분석을 위해 중·소도시 규모 수준의 지역을 선정하고, 둘째, 특수교육에서 특별지원교육으로의 전환 당시 지역 특수교육의 센터적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했던 사이타마대학 부속 특별지원학교 특별지원교육임상센터「시이노미(しいのみ)」로 선정하였으며, 셋째, 최근 5년간 활동보고서 등의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자료 분석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료 확보가 용이한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의 사례 선정은 일본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일본과 유사한 규모의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기관 역시 중·소도시 규모 수준에서 2009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자료에서 대표 사례로 보고된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선정하였다.

양국의 특수교육지원 지역 실천 사례 비교를 위해 각각 선정된 사례의 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연보 및 운영 계획을 주된 분석 자료로 삼았으며, 각 센터의 지원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일본의 경우 특별지원교육임상센터 연보(2010년~2014년)가 바탕이 되었으며, 한국은 포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최근 3년간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및 통계자료(2012년~2014년), 그리고 홈페이지에 탑재된 관련 자료가 주로 활용되었다. 한국 사례의 경우 담당자 등의 변경으로 인해 자료 수집에 제약이 있어 최근 3년으로 한정하였으며, 2014년 운영 계획 외에는 구체적인 수치 등이 기재되지 않아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3년간 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언급하였다.

II. 일본 특수교육 지원의 지역 실천 사례

일본은 2007년 학교교육법 개정 시 특별지원학교가 지역 특별지원교육의 센터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명시하면서, 특별지원학교는 지역의 유·초·중·고등학교의 요청에 따라 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지도·조언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은 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내 특별지원교육부(과)가 있으나, 이 기관은 특별지원교육을 지원하는 종합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덕순, 2007). 이 기관에서는 주로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연수사업, 학교 등 지원(수업연

구회 강사 파견, 도서 대출, 검사기기 대출 등),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소규모 지역 수준에서는 특별지원학교가 특별지원교육의 선택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로 선정된 「사이타마대학 부속 특별지원학교」는 법 규정에 앞서 2004년 발달지원상담실 「시이노미(しいのみ)」를 개설하여 지역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개설 당시 전화 및 내방상담, 학교컨설팅,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각종 연수회 및 강사 파견, 특별지원학교 내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2005년에는 문부과학성의 현대적 교육 요구 지원 사업에 사이타마대학(대학·지역·학교 연계형 특별지원교육 추진-발달지원상담실 「시이노미」를 거점으로)이 채택됨으로써 「시이노미」의 지원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9년도부터는 '발달지원상담실'에서 '특별지원교육임상연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 실천과 더불어 연구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 센터가 위치한 사이타마시(さいたま市)에는 7개의 특별지원학교가 있으나, 사이타마시를 통학구로 하는 특별지원학교는 14개(지체부자유 특수학교 5개교, 시각장애 특수학교 1개교, 청각장애 특수학교 1개교, 지적장애 특수학교 5개교, 병약 특수학교 2개교)가 소재하고 있다. 각각의 특별지원학교는 장애영역별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관련 영역의 장애학생에게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다.

1. 특별지원교육 임상 연구 센터 「시이노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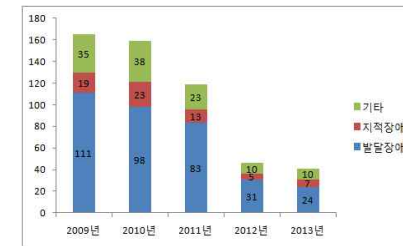
이 연구의 사례로 선정된 「시이노미」는 지적장애 특별지원학교로 사이타마대학 부속 특별지원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센터는 크게 상담지원 부문과 임상실천 지원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담지원 부문에서는 전화 및 내방에 의한 상담, 유치원 및 학교 컨설팅, 연수회 등 강사 파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임상실천 지원 부문에서는 개별 및 집단 지도, 발달장애 세미나 등 연수회 개최, 발달장애교육 지원 프로그램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센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특별지원학교 교원 4명, 전문상담사 2명, 사이타마대학 교육학부 교수 6명(임상발달교육사, 임상심리사를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시 상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특별지원교육 임상 연구 센터 「시이노미」의 지원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지원 활동 내용

1) 전화 및 내방 상담

전화상담은 기본적으로 30분 정도로 진행되고, 내방 상담은 1시간 정도로 이루어진다. 상담 대상은 장애 당사자 및 가족, 또는 교사를 포함하며, 2명의 상담사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담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달검사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조속히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원은 검사결과 및 아동의 특성에 따라 개별지도, 집단지도, 타기관 소개, 유치원 및 학교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상담은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장애영역별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2014), 발달장애가 59%, 지적장애가 17%, 기타 장애가 24%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 센터가 소재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최근 5년간 특별지원교육 임상연구센터 연보(2010년~2014년)에 제시된 상담 사례의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1>, 2009년 165건, 2010년 159, 2011년 119건, 2012년 46건, 2013년 41건으로 센터 개설 당시 증가 추이(2006년 124건, 2007년 154건, 2008년 160건, 2009년 165건)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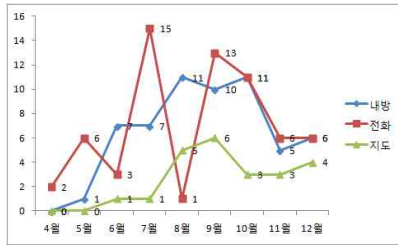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 상담 사례 추이

* 출처: 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特別支援教育臨床研究センター年報(2010~2014)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이러한 감소 추이는 사이타마 교육위원회가 발달장애아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활동이 2011년 이후 지역의 다양한 특별지원학교로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2011). 표면적으로는 상담 사례 수가 감소되었으나, 상담 의뢰자 입장에서는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선택적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신청자가 많아 대기자로 기다리는 번거로움 없이 즉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한다.

상담 사례의 학교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취학전 아동 15%, 초등학생 44%, 중학생 20%, 기타 21%로 초등학생 비율이 가장 높다. 취학전 아동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기발견·조기중재를 위해 영유아 검진을 실시하고, 영유아 양육 및 상담 확대, 유치원 및 보육원 순회지원 등의 복지 시책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예측된다(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2014).

2013년 이루어진 총 144회의 상담 중 전화 상담이 63건, 내방 상담이 58건, 지도가 23건으로 전화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월별 상담 횟수를 살펴보면<그림 2>, 전화 상담이 많은 다음 달은 내방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례들이 전화 상담 후 내방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학교컨설팅 및 순회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5~6월, 11~12월은 상담 횟수가 감소되는 것을 보아 이 기간 동안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 2013년 기준 월별 상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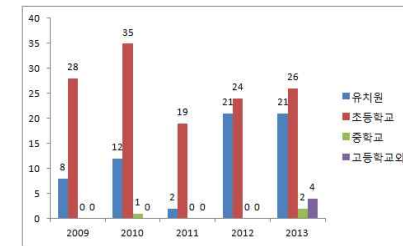
* 출처: 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特別支援教育臨床研究センター年報(2014)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2) 학교 컨설팅

이 센터에서는 2004년 개소 이래 지속적으로 학교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 20개교 36회, 2010년 18개교 32회, 2011년 13개교 18회, 2012년 13개교 25회, 2013년 18개교 36회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컨설팅 절차는 학교로부터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면 컨설팅 가부를 판단 후 학교에 파견 문서를 발송하고, 컨설팅 시트를 학교에 보내어 미리 기록하도록 한다. 이후 접수된 컨설팅 시트를 검토하고 학교컨설팅 가이드북을 의뢰한 학교로 발송한다. 컨설팅 당일 대상 학생의 관찰과 더불어 관계자 협의회가 이루어지며, 실시방법은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 전임 교원 1명, 전문상담원 2명이 함께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보건소의 인력 및 보호자도 함께 동참하게 된다.

최근 5년간 학교컨설팅을 통해 지원을 받은 대상은 연평균 230명이며, 컨설팅을

실시한 학교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2011, 2012, 2013)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년간 컨설팅을 실시한 학교급은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순으로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2013년도에는 장애인이 재직하는 기업에서 컨설팅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장애인이 직장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경감하도록 지원하였다(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2013). 그 밖에 특별지원학교의 센터적 기능의 일환으로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자교실 수업 분석, 일반 초·중등학교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한 사례 검토회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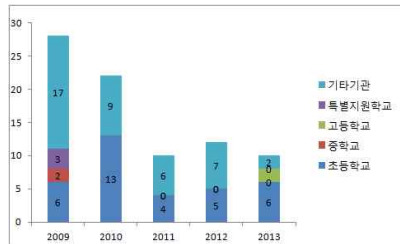


<그림 3> 최근 5년간 학교 컨설팅 실시 현황

* 출처: 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特別支援教育臨床研究センター年報(2010~2014)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3) 강사 파견

교육기관 및 장애 관련 시설 등의 요청에 따라 강사가 파견되어 다양한 주제로 강연회 및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다. 초기에는 특수교육에서 특별지원교육으로 전환된 이후 각 급 학교에서의 특별지원교육 실천에 따른 성과 및 회고 차원에서의 강연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개별 아동의 교육적 요구에 따른 구체적 지원 방안, 보호자와의 협력 방안, 일반학급에서의 특별지원교육(학급경영) 실시 방안, 효과적인 전환 교육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강사 파견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28회, 2010년 22회, 2011년 10회, 2012년 12회, 2013년 10회 강사가 파견되어 장애학생 지도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그림 4>.



〈그림 4〉 최근 5년간 기관별 강사 파견 현황

* 출처: 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特別支援教育臨床研究センター年報(2010~2014)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2011년부터 강사 파견 횟수가 감소된 이유는 전문적인 바와 같이 초기에는 사이타마대학 부속 특별지원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별지원교육의 센터적 기능을 수행해오다 점차 다양한 특별지원학교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특별지원교육 임상연구센터 연보 창간호(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2010)에는 2009년 지역의 특별지원학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센터적 기능 수행을 위한 준비 연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5년간 기관별 강사 파견 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2009년에는 사이타마시 산하 상담센터 등의 기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점차 일반학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4) 개별 및 집단 지도

이 센터에서는 발달장애를 주된 대상으로 내방한 사례 중 정기적인 지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개별 상담지도를 실시한다. 더불어 집단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동·학생에게는 집단 지도를 실시하여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방법, 상황에 적절한 행동 방법, 자신의 감정 통제 방법 등을 익히도록 한다. 특별지원교육 임상연구센터 연보 창간호(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2010)에 따르면 집단 지도는 총 세 개의 그룹으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으나〈표 1〉, 집단 구성은 매년 내방한 아동·학생의 인원 및 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축소되거나 확대되기도 한다.

〈표 1〉 개설 당시 집단 지도 내용

집단명	대상	요일	인원	횟수	보호자모임
키라키라(きらきら)	보육원, 유치원	2,3주제(수)	3명	14회	O
하나마루(はなまる)	초등1학년	3주제(수)	3명	7회	O
니코니코(にこにこ)	초등1,2학년	1,3주제(금)	5명	14회	O

* 출처: 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特別支援教育臨床研究センター年報(2010)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집단 지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발달 연령별 소인수로 실시된다는 점과 게임이나 놀이를 통해 규칙을 습득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점이다. 더불어 각 집단별로 보호자 모임을 갖추고 있어 모임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치원 집단인 「키라키라」의 경우 자녀와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집단 활동에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다가 특정 시점에서 보호자 모임으로 이동되며,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처음부터 학생과 분리하여 보호자 모임이 이루어진다.

집단 지도 시에는 특별지원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관련 기관과의 연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집단 활동에는 사이타마대학 특별지원교육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특수교육 현장 및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지역 NPO법인 상담실 상담원이 참여하여 활동 계획서 작성에서부터 활동의 흐름 파악,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및 접근 방법 체득, 보호자 모임의 진행 방법 등을 익히게 되고, 활동 후 협의회를 통해 특수교사와 전문 상담원 간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더불어 이 센터에서 집단 지도를 수료한 학생 중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다이클래스(さいだいクラス)」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추수지도도 실시하고 있다. 「사이다이클래스」는 사이타마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며 특수교육과 교수, 특별지원학교 교원, 장기연수생, 임상심리사, 대학원 및 학부 학생이 활동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2009년 4명에서(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2010) 2013년 6명(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2014)으로 이용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집단 지도만 실시하였으나, 보호자의 요청 등에 따라 개별상담, 개별지도, 보호자 모임, 졸업준비교실 운영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5) 발달장애 세미나

이 센터가 위치한 사이타마대학 부속 특별지원학교에서는 지역에서 특별지원교육의 충실을 기하고자 2004년부터 「발달장애 세미나」와 「일반학교 특별지원교육 보조원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발달장애 세미나」는 매년 특별지원교육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하고, 특별지원교

육 교사의 현장 실천 사례 보고가 이루어진다. 실천 사례 보고 후에는 협의회를 통해 장애아동·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정보 교류가 이어진다. 5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기관 연계’를 키워드로 3회, 2010년에는 ‘사회적 기술’을 키워드로, 2011년에는 ‘연계’를 키워드로 3회 실시하였다. 2012년부터는 센터 차원에서 개최된 세미나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서 강사 파견을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 및 세미나가 개최됨으로써 주제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이에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일반학급 특별지원교육 보조원 대상 세미나」는 설립 이래 매년 꾸준히 개최되고 있으며, 참가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2011, 2012)

〈표 2〉 2009년~2013년 발달장애 세미나 주제

년도	키워드	주 제
2009년	기관	- 보육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연계하는 특별지원교육
	연계	-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에 대해 -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계에 대해 - 전문기관과의 연계에 대해
2010년	사회적 기술	-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SST(Social Skills Training)
		- 사회성 증진을 위한 소셜트레이닝 실천 - 발달장애아동의 구체적 지원에 대하여
2011년	연계	- 특별지원교육의 현상과 과제 -의료적 입장에서 고찰-
		- 일반학급에서 지원 -순회상담을 통한 고찰- - 특별지원교육의 신시대 개척
'12년~'13년		발달장애 세미나 미실시

* 출처: 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特別支援教育臨床研究センター年報(2010~2014)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6) 발달장애교육 지원 프로그램 연구

이 센터에서는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 개선 및 지역 특별 지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장 교사와 대학 전문가가 협력하여 실천 사례를 분석하는 등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시이노미」의 학교 컨설팅 실시에 대한 특징과 과제」외 2건, 2010년에는 ‘자녀가 집단지도에 참여하기까지의 보호자의 내적 프로세스’외 7건, 2011년에는 ‘대학과 부속 특별지원학교의 연계에 의한 지역 지원’ 외 4건, 2012년에는 ‘일반학급 담임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모델 작성 시도’ 외 4건, 2013년에는 일본 특수교육학회에서 ‘센터적 기능을 담당하는 스텝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실시하는 등 4건의 연구 실적을 거두었다. 이와 같이 현장교사와 전문가가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를 바탕으로 한 실천 연구가 가능하게 되며,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현장에 피드

백 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

III. 한국 특수교육 지원의 지역 실천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긍정적 결과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원하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국립특수교육원, 2005). 이후 2007년 개정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명시함으로써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기본 틀은 정립되었으나, 개별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다양한 보조인력지원, 통학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관련서비스의 내실화가 아직 미흡하고, 전문인력 배치의 부족으로 역할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교육부, 2013)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특수교육 운영 계획’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특수교육 활동 지원(순회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가족 상담, 특수교육 관련 연수 제공 등), 특수교육대상자 발견 정보 관리 지원, 진단·평가 지원, 선정·배치 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a, 2014).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국가에서 제시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지역의 실정이나 지원 학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례로 선정된 포항 특수교육지원센터 또한 이러한 기능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개요

한국의 사례로 선정된 포항특수교육지원센터가 위치한 포항시는 인구 51만 5천 여명의 중·소도시이다. 이 지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와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단체에서 평소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학급 신·증설 등 각종 요구 사항이 많은 지역으로 방학 중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히 이 지역에는 사범계열 특수교육학부, 사회복지학과, 물리치료과, 작업

치료학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 인력 활용이 용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14 특수교육 통계조사'에 따르면 이 센터에는 특수교육 장학사 포함 총 10명의 특수교육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정규 공무원이 3명(장학사 1명, 특수교사 2명), 비정규 인력이 7명(특수교사 5명, 치료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명의 영아가 이 센터에 배치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27명의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포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2. 지원 활동 내용

1) 장애 영·유아 교육지원

이 센터에서는 장애영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무상교육 제도 도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개별화교육계획에 의거 조기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포항시 관내 0세에서 만 2세 장애영아가 대상이 되며,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지사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의해 1차 선정이 이루어진다.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얻어진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2차 가정방문을 통해 유아와 대면하여 장애정도, 교육환경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진다. 선정 후에는 개별화교육계획이 수립되고, 이 계획에 따라 주1~2회 1시간씩 장애영아에 대한 조기교육이 이루어진다. 2014년도 이 센터에서는 8명의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이 중 지체장애가 6명 의사소통장애가 2명으로 대부분의 대상자는 의사소통 증진 및 신체운동, 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받았다(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2014). 이러한 교육내용은 연령 및 발달 특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특수교육 활동지원 - 순회교육

이 센터에서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거나,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으나 재택 순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로 순회 특수교육 선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학생을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포항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운영 지침에 의거 중도·중복장애아, 저학년, 진행성 근이영양증, 읍면지역 거주 학생 등이 우선순위가 된다. 지도형태는 방문교육,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하다. 2014학년도 이 센터를 통해 순회교육 지원을 받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영·유아 10명, 초등 3명, 중등 8명, 고등 6명으로 총 27이다(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2014). 교육내용으로는 영·유아의 경우 의사소통이

12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6권 3호)

나 신체운동 등의 기초적 활동이 주가 되고,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등 주요 교과가 주된 교육 영역이 된다. 총 7명의 순회교사가 거주지역, 발달연령, 장애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하여 실시하였으며, 실시 시에는 일반학급 담임, 특수학급 담임, 학부모와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개별화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지도가 이루어진다. 실시 방법은 대상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주 1~2회, 1~4시간 이루어지며, 중등학생의 교과 지도는 2명의 학생에게 집단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경감시키고 2차적 장애를 예방하고자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된 학생에게 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치료지원 영역으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청능훈련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 중 작업치료와 언어치료는 치료지원으로 직접 제공하고 다른 영역은 교의 운영(복지관, 병·의원, 사설 치료시설 등)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가 지원된다. 2014년 센터 차원에서는 작업치료사와 언어치료사가 각 1명이 각각 8학급 8명의 학생에게 주당 16시간씩 지원하였다(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2014). 치료지원 대상학생의 선정 기준은 순회교육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중도·중복 장애아가 우선 선정되나, 다음 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재택교육 대상자로 경제적 어려움 또는 교의 치료지원이 곤란한 장애학생이 우선된다. 치료지원 선정 절차는 우선 치료지원신청서와 각 치료영역 검목표를 작성하여 각 학교에서 접수 및 수합 후 검목표를 점수로 환산하여 1차 선정이 이루어지고, 각 치료영역별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2차 선정이 이루어진다. 이후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각 대상자에게 치료지원이 제공된다.

4)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지원

진단·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는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2009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자료(국립특수교육원, 2009)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진단·평가를 위한 일련의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 계획에 따라 진단·평가팀이 구성되면 사전 연수가 이루어진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자료에 따르면 진단·평가팀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여, 특수교사, 상담교사, 치료전문가, 의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육 관련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이 센터의 진단·평가팀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1명을 제외하면 교사와 센터 소속 치료사만으로 구성되었다.

진단·평가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진단·평가 의뢰서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되고, 접수 후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회부된다. 이후 접수 명부를

작성 후 진단·평가 시행 안내 및 관련기관에 협조를 의뢰하게 되고, 진단·평가 실시 후 결과에 대한 처리 및 해석이 이루어진다. 결과 해석은 진단·평가팀을 통해 이루어지며,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배치가 이루어진다. 이 센터에서는 연 4회 분기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선정·배치 사전 회의가 실시된다(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2012, 2013, 2014).

5) 특수교육지원센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

이 센터에서는 '감각운동 교육지원, 방학 중 교육활동 프로그램, 포항시 특수학급 연합 체육대회'의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감각운동 교육지원은 학기 중에 이루어지며,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가 대상이 된다. 감각운동 교육지원은 주4회 3시간 실시되며, 3시간 중 2시간은 지원센터 치료교육 교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시간은 대상학급 인출교사의 지도 아래 자유 활동시간으로 진행된다. 최근 3년간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신체 균형 유지하기, 피부감각 자극하기, 진정감각 자극하기, 순환 운동하기, 물체 따라 주목하기' 등의 주제로 감각운동 지원교육이 실시되었다(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2012, 2013, 2014). 두 번째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방학 중 교육활동 프로그램 및 계절학기 운영 지원 프로그램이다. 방학 중 교육활동 프로그램은 방학 중 초등 장애학생의 사교육비 경감 및 소절·적성 개발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5개 강좌(쿠키클레이, 리트미 뮤직, 미술놀이, 특수체육, 난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좌별 인원은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방학 중 2주간 주 5회 매일 3시간 운영한다. 중등학생에 대하여는 경북장애인 부모회 등에 위탁하여 계절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방학 동안 지속적인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 생활 태도와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계절학교의 급당 인원은 6명~10명으로 3주간 주 5회 매일 6시간 운영한다. 지도교사는 교사 자격증 및 관련자격증 소유자로 선발하며, 특수교육 실무사나 지역의 대학생 등을 보조교사로 활용한다. 이 센터의 세 번째 자체 프로그램은 지역의 초·중 특수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5월) 개최되는 '한마음 체육대회'이다. 약 300명 정도의 장애학생들이 참석하게 되며, 행사 진행은 외부 이벤트 업체에 위탁한다. 참가 학생들은 특수학급 학생들 간의 만남을 통해 상호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체육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게 된다.

6)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자립 및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유관기관 및 사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진

로·직업교육 지원 대상은 관내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중·고등학교 학생이다. 우선 신청자를 대상으로 직업준비 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직업적 감정과 약점, 잠재능력 등을 파악한다. 실질적인 직업지원으로는 2014년도 기준 중학교 특수학급 17개교 123명, 고등학교 특수학급 9개교 117명을 대상으로 협력업체 견학, 직업체험을 실시하였다(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2014). 2014년 4개의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생산라인 견학 및 현장 직무 체험을 하였으며, 직업체험으로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매 주 제과 제빵 교육지원, 천연비누 만들기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과 연계한 취업 안내, 포항명도학교와 연계한 직업체험의 날 행사도 실시하고 있어, 유관기관 및 지역 사업체와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7) 장애학생 범피예방을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지원

이 센터의 장애학생 범피예방을 위한 상설모니터단은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각 1명, 특수학교(급) 교장(교감) 1명, 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 경찰관 1명, 장애학생 인원보호관련 전문가 1명, 학부모를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모니터단은 지역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 정기 모니터링, 사안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고위험군 장애학생 관리 및 우선 점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 4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심 대상 장애학생 선정 및 방문학교 결정, 관리 학생 지원 등을 논의한다. 2014년 총9회의 상설모니터단 학교방문 및 상담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관내 초·중학교 교감(교장)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교육 및 장애인식교육을 실시하였다(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2014). 또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고위험군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는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군 힐링 캠프를 실시함으로써 장애학생 인권침해 및 학교 성폭력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하고 있다.

8)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주 업무

센터 상주 업무로서 특수교육 상담 및 정보관리, 특수교육지원센터 활동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특수학급 운영 지원 및 특수교육 자료 지원, 통합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우선 특수교육 상담 활동으로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 및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다각적 상담(진단·평가, 배치 및 진학, 직업생활 등)을 하고 있으며, 미취학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발견 및 정보관리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센터 활동 내용 홍보와 각종 연수자료, 교수-학습 자료 등을 탑재하여 특수교육 관련자가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수학급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과 공학기

구 및 각종 학습 보조 도구 지원 및 대여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통합교육 방법 익히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IV. 한국과 일본 실천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

이상으로 지역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하에서는 이들 사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활동 중 한국에 시사 가능한 활동 내용 중심으로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원 대상

한국과 일본 특수교육 지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상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반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모든 장애 영역의 아동·학생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의 경우 장애 영역별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장애 영역별 지원이 가능한 이유는 일정 지역 내 장애 영역별 특수학교가 확보되어 있어 이들 특수학교가 관련 장애 영역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 영역별 특별지원학교는 그들이 쌓아온 교육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학교에 배치된 관련 장애 영역의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 밖에 지원 대상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유치원 및 일반학교,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다. 더불어 일반학교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슈퍼바이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교육 환경에 배치된 장애학생에게 원활한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추연구(2008)의 연구에서도 히로시마키타양호학교(廣島北養護學校)가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한 실적을 보고하며, 일본 특별지원학교의 센터적 기능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현재 학교 컨설팅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학교 컨설팅이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8가지 역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지원센터의 인력구조로는 전문적 학교 컨설팅은 사실상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2. 지원 내용

본문에서 언급한 한국과 일본 사례의 특수교육 지원 내용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한국의 경우 ‘장애 영·유아 교육지원, 특수교육 활동지원(순회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 진로·직업 교육, 장애학생 범죄 예방을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상담 등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주 업무’로 8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활동은 교육부에서 제시한(교육부a, 201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화 및 내방 상담, 학교 컨설팅, 강사 파견, 개별 및 집단 지도, 발달장애 세미나, 발달장애 지원프로그램 연구’로서 지원 내용에 있어서 한국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표 3> 한국과 일본 사례의 특수교육 지원 내용

한국 포항특수교육지원센터	일본 특별지원교육 임상 연구 센터
- 장애 영·유아 교육지원	- 전화 및 내방 상담
- 특수교육 활동지원-순회교육	- 학교 컨설팅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치료지원	- 강사 파견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지원	- 개별 및 집단 지도
- 특수교육지원센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	- 발달장애 세미나
- 진로·직업 교육	- 발달장애 지원프로그램 연구
- 장애학생 범죄 예방을 위한 상설 모니터단 운영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주 업무 (상담, 교원연수, 정보제공 등)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행 초기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기관’이라는 성격에서 출발하였으나, 사실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와 ‘순회교육(치료교육 포함)’의 기능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덕순, 2007; 이상훈, 2013). 이 연구의 사례로 선정된 포항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의 타이트한 순회교육 시간표는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 해준다(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2014). 반면, 일본의 경우 한국의 지방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주력하고 있는 ‘순회교육’의 형태는 학교교육에서 담당한다. 일본은 특별지원교육으로의 전환에 앞서 지방 자치단체별 다양한 학적 구상을 통해 모든 장애학생이 그들의 개별적 요구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이타마의 경우 일반학교에 적응 둔 장애학생은 특별지원학교에 원점을 둬으로써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細測, 박경란, 2006). 더불어 한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진단·평가 및 배치’와 관련된 업무는 일반 교육위원회에서 위촉한 취학위원회에서 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들의

취학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특별지원학교는 순회교육이나 진단·평가 및 배치 기능보다는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가적 지원을 더 강조하고, 이와 함께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취학지원이나 상담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 또한 상담으로 그치지 않고 상담-지도 연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가 요구되는 학생에게는 개별 또는 집단지도 형태로 제공된다는 점은 한국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3. 인력의 전문성

두 사례의 센터 인력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장학사를 중심으로 특수교사와 치료사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특수교사와 전문 상담사, 대학 교수 등 다양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대학의 교수는 상담 및 학교 컨설팅 등의 일정에 따라 지원에 개입되나, 대학 방문을 통한 추가적 상담 및 전화 상담은 상시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 문제는 선행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민천식, 2010; 박경옥, 2011; 김태훈, 2011). 사례의 포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총 10명의 인력 중 비정규 인력이 7명에 해당된다. 김태훈(2011)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의 특수교육경력 이 대부분 2년 미만임을 보고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담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전문 영역의 인력이 고루 확보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에서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체제에서 전담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역의 특수학교와 연계하여 장애영역별 전문성에 대응하는 것이며, 특수교육과 설치 대학 및 상담센터 등의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4. 운영 자료 관리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각각 하나의 사례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매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은 수립하고 있었으나, 이에 따른 결과 보고서 작성되지 않았으며, 운영 계획 또한 담당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반면 일본 사례는 연차별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꾸준

히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 필요한 자료의 즉시 확보가 가능하였으며, 전담 인력이 센터 개설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담하고 있어 추가적 자료 확보 또한 원활하였다. 한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자료 관리가 용이하지 못한 이유는 전술한 전담인력의 확보와도 연계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총괄직임을 맡고 있는 장학사의 잦은 교체와 진공 불일치 등의 문제, 더불어 비정규 인력의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이직은 센터를 운영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를 갖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특수교육 지원의 센터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인력 확보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상 네 가지 관점, 즉 '지원대상', '지원내용', '인력의 전문성', '운영 자료 관리'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육지원 지역 실천 사례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육은 분리교육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대응 문제도 공통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은 특수학교가 지역 특수교육의 센터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그 정체성을 재정립하였으며, 한국은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한국은 모든 장애 영역을 아우르는 지원율, 일본은 장애 영역에 따른 지원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된 「감각장애 학생을 위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 영역별 교육적 대응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장애 영역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수학교와의 연계가 불가피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2012). 2012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2013). 2013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2014). 2014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교육부 (2013).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13~'17(안).
 교육부a (2014). 2015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교육부b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국립특수교육원 (200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자료.
 김태훈 (201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현황 및 개선방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천식 (2010).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해결과제. 지적장애연구, 12(2), 97-118.

- 박경옥 (201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운영현황과 효율적 지원방안.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지 중북·지체부자유연구, 54(4), 1-20.
- 배정은 (2009).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교사의 운영 실태 인식 및 욕구 분석 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봉 (2014). 특별지원교육의 지역교육력 특징 및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지원교육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9(1), 19-32.
- 이상훈 (2013). 정서·행동장애학생의 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정서·행동장애연구, 29(1), 1-21.
- 추연구 (2008). 일본의 특수교육 변화에 따른 특별지원학교의 센터적 기능에 관한 연구. 정신지체연구, 10(1), 161-184.
- 추연구 (2009). 일본 특별지원교육의 동향과 특징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1), 1-29.
- 한영선 (2010). 일본 특별지원교육의 성립과 특징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정숙 (2012). 특별지원교육을 통해 본 일본 통합교육과 한국에의 시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1), 305-324.
- 細瀨富夫, 박경란 (2006). 일본 특별지원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정책 동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2), 197-218.
- 瀧坂信一 (2004). 盲・聾・養護學校の果たす地域での「センター的機能」. 国立特別総合研究所教育相談年報, 25, 21-23.
- 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2010). 平成22年 特別支援教育臨床研究センター 年報.
- 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2011). 平成23年 特別支援教育臨床研究センター 年報.
- 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2012). 平成24年 特別支援教育臨床研究センター 年報.
- 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2013). 平成25年 特別支援教育臨床研究センター 年報.
- 埼玉大學教育學部付屬特別支援學校 (2014). 平成26年 特別支援教育臨床研究センター 年報.

Study on Local Practical Cases of Supports for Special Education in Korea and Japan

Park, Kyung-Ran

Sehan University

Park, Mee-Jung

Uid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ocal practical cases of supports for special education in Korea and Japan to invigorate the operations of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in Korea and to sophisticate the supports for Korean special education. One center from each country was selected and each of their application contents was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at of the other to deduct implications from four different perspectives. First, in terms of the eligibility, the supports for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in Korea are equal regardless of the types of disabilities, while the supports are determined by the types of disabilities in Japan. School consulting system in Japan contributes to the professionalism of faculty in regular schools. Second, in terms of the contents of the supports, Korean system focuses on the functions of 'assessment' and 'itinerant education', while Japanese system emphasizes the need for professional workers in school education and for supporting admission and consultation for students and their guardians. Third, in terms of professionalism of faculty organization, Korean system is composed of special instructors and therapists, while Japanese system is composed of special instructors, professional consultants, and university professors. Lastly, in terms of database management, the data stored as a record of center operations in Korea is quite insufficient, while related data is well maintained since the foundation of the center in Japan.

Key Words : Supports for Special Education,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Special Support Education

논문 접수: 2015. 08. 05 심사 시작: 2015. 08. 12 게재 확정: 2015. 09. 02